

01 교회소식

세상 모든 영혼이 구원을 얻기까지

우리 교회 선교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권능의 손수건을 가지고 파키스탄과 스리랑카 영혼들에게 주님 사랑을 전했다.

02 생명의 말씀_ 영적인 사랑 시리즈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영적인 사랑을 이루려면 상대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생각, 판단 정죄하는 생각, 하나님 뜻에 위배되는 모든 생각을 버려야 한다.

03 신앙상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서는 천국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드리는 감사의 찬양과 마음 다해 드리는 찬양을 기뻐하십니다.

04 간증

불가리아에도 하나님 권능의 역사가

불가리아 기독교개혁회 회장 키릴 스펠레노프 박사가 WCDN과 우리 교회를 만난 이야기.

만민뉴스

제556호 2012년 11월 4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파키스탄, 스리랑카를 새롭게 한 성령의 바람

길태식 목사 초청 목회자 세미나 및 손수건 집회



생명의 말씀과 하나님 권능의 역사가 파키스탄과 스리랑카에 펼쳐졌다. 1만여 명이 참석한 파키스탄 오순절교단 운동장 손수건 집회(사진①)와 스리랑카 콜롬보 킬루포나 지역 손수건 집회(사진②), 권능의 손수건으로 기도해주는 강사 길태식 목사(사진③)와 치료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간증자들(사진④,⑤), 파키스탄 사역의 공로를 인정받아 박사학위를 수상한 길태식 목사(사진⑥ 가운데).

이슬람교도가 97%에 달하는 파키스탄과 국민의 약 69%가 불교도인 스리랑카에서도 따르는 표적과 권능으로 복음의 불길의 활활 타오르고 있다.

지난 10월 16일부터 26일까지 길태식 목사(대전만민교회 담임)를 강사로 파키스탄과 스리랑카 선교 출장이 있었다.

먼저 17일, 라호르 앰배서더 호텔에서 길태식 목사의 박사학위 수여식이 있었다. 파키스탄 비숍들과 교회 대표자 협의회가 주관해 길 목사의 파키스탄 사역의 공로를 인정해 수여한 것이다. 길 목사는 지난 10년간 14차례 파키스탄을 방문해 12개 도시에서 세미나 및 손수건 집회를 인도한 바 있다.

더불어 NGO(비정부기구) 중 하나인 '브라이트 퓨처 소사이어티(밝은미래사회)에서는 사랑과 헌신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든 인물에게 수여하는 '선한 사마리아인 상'을 당회장 이재록 목사에게 수여해 영혼 구원을 위한 헌신에 감사해했다.

이어진 세미나에서는 길 목사가 이재록 목사의 저서 『깨어라 이스라엘』을 토대로 하나님의 인간 경작의 섭리에 대해 전했다. 이날 저녁에는 이삭TV 사장 안와과갈 목사의 요청으로 오순절교단 운동장에서 손수건 집회가 열렸다. 길 목사는 '예수가 구세주 되시는 4가지 조건'에 대해 설교했고, 환자를 위한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 기도로

많은 사람이 치료받았다.

18일, 안와과갈 목사가 시무하는 영생교회에서 열린 목회자 세미나에서 길 목사는 '믿음의 분량'에 대해 강의했다. 참석자들은 영적 말씀에 감탄하며 이재록 목사의 많은 말씀을 더 궁금해 달라고 요청했다.

20일, 스리랑카 콜롬보 킬루포나 지역 손수건 집회에서 길 목사는 하나님께서 '인간 경작을 하시는 이유'와 '선악과를 두신 이유'에 대해 증거했고, 21일 와팔라 지역 손수건 집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전했다.

이틀간의 손수건 집회를 통해 갖가지 질병과 통증이 사라져 많은 사람이 살아 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호흡곤란증으

로 5년간 호흡기에 의지했던 기간 다야상하(남, 6)는 가슴과 목에 따뜻한 느낌이 들면서 치유됐고, 니할 페르난도(남, 54)는 교통사고 후유증이 사라졌다고 간증했다. 또 앞을 잘 볼 수 없었던 브리젯(여, 60)은 시력이 회복됐고, 마라다이(여, 65)는 15년 된 척추 통증이 치유되는 등 간증이 넘쳤다.

22일 콜롬보 지역 목회자 세미나, 23일 캔디 지역 목회자 세미나에서 길 목사는 '믿음의 분량'과 '십자가의 도'를 전했다. 성결 복음의 진수를 맛본 목회자들은 "지극히 성경적이며 깊이 있는 영적 말씀이다."라고 고백하며 벌써부터 다음 세미나를 기대하고 있다.

이재록 목사 설교, 이삭TV 통해 더 많은 영혼에게 전파

파키스탄 이삭TV를 통해 더 많은 영혼이 생명력 있는 메시지를 들 수 있게 됐다.

이삭TV는 이재록 목사 설교를 이삭TV 사장 안와파갈 목사가 하루 6시간씩 영어와 우르두어로 파키스탄과 중동 전역에 송출하며, 매일 2시간씩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만민 찬양과 공연을 방송하고 있다.

사장 안와과갈 목사는 "최근 영국, 유럽, 아프리카를 커버하는 위성을 확보해 더 많은 영혼이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를 들 수 있게 됐다."며 "무수한 영혼이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삭TV 사장 안와파갈 목사



당회장 이재록 목사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청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고린도전서 13:5)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남편이, 자녀가 항상 건강하고 잘되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남이 잘못되기를 바라고 상대의 불행에 기뻐한다는 것은 그만큼 내 안에 사랑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상대의 허물이나 약점을 들춰 전하려고 하지요.

상대가 그릇된 길로 가는 것을 막고 선한 길로 인도하기 위해 어떤 사실을 알아야 할 경우가 아니라면, 남의 말에 솔깃하고 궁금해 하는 것은 내 안에 험담과 수군수군 하는 비진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잠언 17:9에 “허물을 덮어 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둬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말씀했습니다. 마음이 선하고 사랑이 있는 사람은 남의 허물을 덮어 주려고 하며 들춰내려고 하지 않지요. 또한 남이 칭찬받고 인정받으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뻐하며 행복해합니다.

2) 상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어떤 성도가 크리스천으로서 합당치 않은 곳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이때 마음에 악이 있으면 ‘어떻게 저런 곳에 출입하지?’ 하고 나쁜 생각이 스칩니다. 선한 마음이 있다면 ‘왜 저런 곳에 갔을까? 뭔가 사정이 있겠지.’ 하고 좋은 쪽으로 이내 생각을 바꿉니다.

마음에 악이 없고 영적인 사랑이 있는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설령 상대에 대해 좋지 않은 말을 전해 듣는다 해도 사실 여부를 확인할 때까지 선불리 판단하지 않지요.

야고보서 4:12에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관대 이웃을 판단하느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재판관으로서 정확한 판단을 하시며 우리 사람이 남을 판단하는 것은 악이지요.

영적인 사랑이 있으면, 설령 상대가 잘못을 했을지라도 선불리 ‘상대가 옳다, 그르다’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를 긍휼히 여기며 어찌하든 살릴 길을 먼저 생각하지요. 허물을 덮어 주고 용서할 뿐 아니라,

상대가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허물 많은 사람도 이렇게 사랑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을 대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혹여 상대를 보고 쉽게 판단 정죄한다면 그만큼 영적인 사랑이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3) 하나님 뜻에 위배되는 모든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사람을 선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도덕이나 양심은 선의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것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어긋난 것은 다 악이며 죄이지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면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아무리 선하게 살았다고 자부하던 사람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면, 거짓되고 악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었습니다.”라고 회개하며 자백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죄와 악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나무에 비유한다면, ‘악’은 보이지 않는 땅속 뿌리와 같습니다. ‘죄’는 눈에 보이는 줄기와 잎, 열매라 할 수 있지요. 뿌리가 있기에 줄기와 잎, 열매가 나오듯이 죄는 악에서 나오는 산물입니다.

악은 땅속 깊숙이 자리 잡은 뿌리와 같이 마음 안의 ‘속성’이며, 이 악이 구체적인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45에 “선한 사람은 마음의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의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욕을 하며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이는 마음에 있는 미움이 라는 악이 ‘욕’과 ‘폭력’이라는 행함 곧 죄로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마음에 악이 있다고 반드시 죄를 짓지는 않습니다. 교양이 있거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절제하면 죄로는 나오지 않지요. 그러나 마음속에 악이 있기 때문에 성결하다 할 수 없습니다. 그 죄성까지 다 버려야 성결하다 인정받고 영적인 사랑을 이룰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서는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

명도 압축하면 ‘사랑’이지요. 따라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남을 확연히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만 악이고 죄인 것이 아니라, 결국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악이며 죄라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더욱 사랑하기에 힘써야겠습니다.

2. 영적인 사랑을 이루려면

무엇보다 비진리의 것들을 보거나 듣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비진리의 것들을 보고 들었다면 떠올리거나 기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지요. 그런데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면 더 떠오르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럴수록 더 불같이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일부러 악한 것을 보고 듣고 떠올리는 일은 없어야 하며, 순간 스치는 악한 생각도 버려야 합니다. 악한 일에 결코 가담해서도 안 되지요.

사람은 타고난 죄성과 성장하면서 보고 들은 비진리를 바탕으로 자기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죄성과 비진리를 버리는 데에는 많은 인내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진리보다 비진리가 더 익숙하고, 비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만 버리기는 상대적으로 어렵지요. 하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그가 좋아하는 것은 좋아지고 싫어하는 것은 싫어지듯이,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계명을 지키며 악은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영적인 사랑을 이루려면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양식 삼고, 불같은 ‘기도’를 해야 합니다.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 악한 생각을 물리치고 선한 생각을 하며, 불같이 기도해 나갈 때 미처 깨닫지 못하던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실 속의 악을 발견해 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불같은 기도로 신속히 악은 모양이라도 벗어버림으로써 범사에 선한 생각과 진리를 행하는 영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똑같은 장면을 보아도 선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인 사고로 쉽게 남을 판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본인에게 한 말이 아닌데도 오해해 주변 사람을 난처하게 만들지요. 선한 생각은 평안과 생명을 주지만, 악한 생각은 백해무익하며 자신의 삶을 불행하게 합니다. 나아가 주변 사람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요.

악한 것이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볼 때 하나님 뜻이 아닌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영적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려면

1) 상대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가령, 잘사는 친구를 보면 뽐내는 것 같아 시기 질투가 납니다. 이때 ‘친구는 잘사는데 나는 뭐가. 그가 망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스친다면 그것은 악한 생각입니다. 마음에 영적인 사랑이 있으면 결코 악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거나 사고가 나기 바라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내 아내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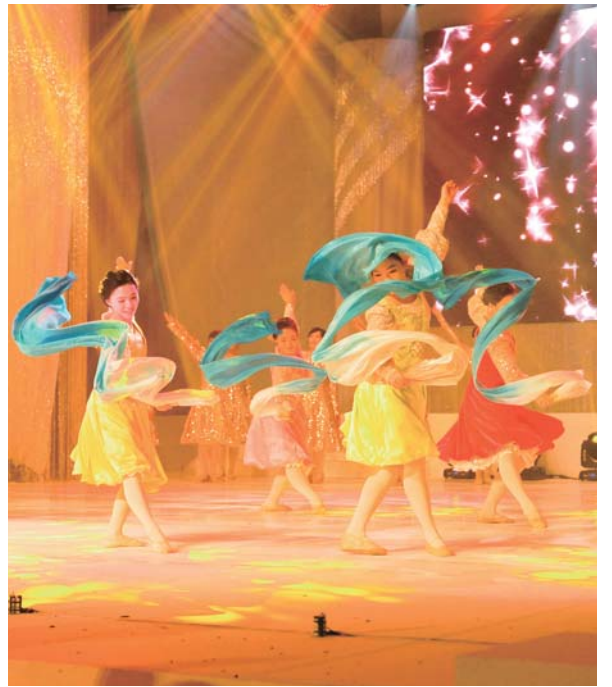


- 교회버스 (교회 차량/ ☎ 02) 818-7391~5) 주일·금요일 각 지역별 운행(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일원)
- 지하철 2호선 구로 디지털지역(번 출구)/ 환승 5536 7호선 남구로역(번 출구) 도보 10분
- 시내버스 디지털단지 오거리 정류장/503,504,571,652,5618,5619,5626,5630,5712,5714 연희대용고등학교 정류장 (남부순환도로)/ 651,5528 504,643,5626 구로디지털단지역 정류장 (시흥대로)/5,51,150,505,507,5531,5534,5601,5616,5617,5620,5621,5623,5624,5625,5627,5633,5713,6512,6635,금천06/환승 5536 만민중앙교회 앞 정류장/ 5536, 5615(편도), 5616(반대편 편도)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빛과소금성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요식업성교회 예배	11:00 PM
주일 저녁예배	3:00 PM
금요일예배	11:00 PM
수요일예배	7:00 PM
화요일예배 [대학·가나안·청년·비율·마리아]	8:00 PM
빛과소금 수요찬양예배	9:00 PM
토요일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일예배 [아동부]	3:00 PM
다시·일월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간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간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070-8240-5609 02) 851-3845 (예금주 위성영)
국민은행 362-21-0201-106
우리은행 072-255732-02-201
농협 100072-52-061722
우체국 012419-02-047269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 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http://news.manmin.org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235-3
대표전화 02) 818-7000



만민중앙교회 창립 30주년 축하공연 중에서

Q 저는 온몸으로 찬양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찬양을 통해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은 어떤 것일까요?

A 찬양의 사전적 의미는 '아름답고 훌륭함을 기리고 드러냄'입니다. 그러나 성경적 의미는 하나님 영광과 위엄 및 그분의 모든 행사를 시, 노래, 여러 악기들의 연주 및 춤 등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하지요.

시편 150:3-5을 보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 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하며 여러 악기로 연합해 춤추어 찬양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음악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노래를 많이 부른다고 해도 사업터, 일터에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며 건강해지거나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또는 영광을 돌리기 위해 드리는 찬양은 생명이기에 우리 삶에 기쁨을 주고, 우리 영혼이 잘되게 하므로 많은 축복이 임합니다.

성경 곳곳에는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입니다(사 43:21, 롬 11:36, 고전 10:31),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신 분이기에 때문입니다. 또한 찬송 중에 거하시기 때문이지요(시 22:3).

이처럼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천국에 소망을 두고 기쁨으로 드리는 감사의 찬양을 기뻐하십니다

찬양에는 회개의 찬양과 사명감당을 위한 찬양, 천국에 소망을 두고 드리는 찬양이 있습니다.

회개의 찬양은 하나님 말씀 안에 살지 못해 죄를 지음으로 총만함이 떨어지니 곤고함 속에서 드리는 슬픔의 찬양을 말합니다. 또한 사명 감당을 위한 찬양이 있는데 사명 감당을 잘하기 위해 드리는 찬양을 말하지요. 마지막으로 천국에 소망을 두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리는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천국에 소망을 두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리는 찬양의 찬양을 기뻐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증거하다가 매를 맞고 착고에 체인 채 깊은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기쁨으로 찬송을 올립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받는 고난에 감사하는 찬송이었지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옥문을 열고 착고를 풀어 주실 뿐 아니라 간수의

가정까지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이처럼 살아 계신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소망을 두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으셔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찬양에는 마음 중심에서 우리나라와 살아 역사하는 영혼의 찬양이 있는가 하면, 비록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을 한다 해도 그냥 입술로만 부르는 찬양도 있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목소리일지라도 마음의 향이 담기지 않은 찬양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습니다. 즉 천국에 소망을 두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올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마음 중심에 아름다운 목소리까지 겸비한다면 최상의 것이 되겠지요.

마음 중심을 다해 드리는 찬양을 기뻐하십니다

마음 중심을 다한 찬양은 거룩하고 흠 없는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흠과 티가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기에 사랑 자체가 되십니다. 자녀 된 우리도 악이 조금도 없는 거룩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또 사랑이 넘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외모 또한 깨끗하고 단정해야 하지요.

그리고 기도로 준비된 찬양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추진하려고 할 때에 만반의 준비가 선행돼야 하듯이 더욱 아름답고 은혜로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찬양곡과 가사 등 분야분야를 정성껏 준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기도가 우선시 되어야 하지요. 그래야만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불같은 기도를 통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벗어 버림으로 항상 마음에 평강이 임하며 거룩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감동함 속에 드리는 찬양입니다. 찬양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은혜를 입고 감동함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찬양하는 사람이 먼저 감동함을 입어야 하지요. 그럴 때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감동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은 우리에게 총만함을 주어 우리 영혼을 살찌우며 삶을 변화시켜 줍니다. 즉 슬플 때에 위로가 되고(시 105:2-3), 상한 마음을 치료하며(삼상 16:23),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게 해 주지요.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행 16:25, 26), 어떤 상황에서도 수치를 당치 않게 되며(골 2:26), 마음의 소원을 응답받는 등 많은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방송, GCN!

11 November

주요 프로그램 안내! Programming Guide

- 이재욱 목사의 '생명의 말씀'
 - 2차 영혼육 4-8
 - 성령의 9가지 열매 4-8
 - 자옥 1-5
 - 창세기 강해 34-38
 - 요한일서 강해 37
- GCN TV설교
 - 이수진 목사의 '사람이 다스려야 할 몸의행실' 2-6
 - GCN TV특강 '정구영목사의 십자가의 도 12-14'
 - 반공선 권사의 '일곱교회1-2'
 - 신동초 목사의 '오중복음 1'
- 찬양 프로그램
 - GCN파워프레이즈(2) 12-16
 - 해외성회 시리즈
 - 온두라스 연합대성회 2-1, 2-2
 - 독일연합 대성회 '총합편'
- GCN 특선명화
 - 왕중왕 1,2부

위성, 인터넷, 인터넷TV 방송 A/S 문의 1577-2073

GCN

“평생 잊지 못할 권능, 말씀, 찬양! 불가리아 영혼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불가리아 소피아 해마 메디컬 센터의 가정의학전문의입니다. 외국 유학 중 주님을 영접하신 아버지를 통해 저희 가족은 자연스럽게 크리스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리아에서 공산주의 통치가 막을 내린 1989년까지 정부의 감시와 핍박 속에 살아야 했지요. 그 속에서도 저희 가족은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성경과 신앙서적을 배포했고, 몇몇 기독교 영화를 번역하고 더빙해 기독교인들에게 공급했습니다.

크리스천 의사로서 헌신하던 중

아버지는 기생충학(Parasitology) 교수, 어머니는 내과 의사였기에 저는 고등학교 졸업 후 의학과 컴퓨터 공학을 놓고 진로를 고민했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는 ‘부모님의 직업을 따르라’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의대 입학시험을 치르기 전, 하나님께서는 제게 특별한 체험을 허락하셨습니다. 꿈을 통해 시험 문제를 알려 주신 것입니다. 덕분에 저는 우수한 성적으로 소피아 의대에 입학했고, 1996년 11월에 졸업했습니다.

크리스천 의사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궁구하며 제 삶을 즐기며 헌신해 왔습니다. 불가리아 기독교 의학협회 회장으로 주말이면 낙태, 복제, 창조와 진화에 관한 세미나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아내와 함께 성경 공부 모임과 가정 상담을 하고 있지요. 뿐만 아니라 경찰서, 학교, 소방서, 지방 자치단체 등에 성경을 보급해 왔습니다.

지난 10년간의 선교사역 중 가장 멋진 일은 ‘바이블 프로젝트’였습니다. 300만 부 이상의 성경과 어린이 신앙서적 등을 나눠 줬지요. 불가리아는 감사하게도 EU(유럽연합)에 속한 국가 중 유일하게 공립학교에서 기독교 교육이 허용된 나라입니다.

주 영광을 위한 기독교인들의 모임 WCDN을 만나

어린 시절, B형 간염에 걸려 심각한 상황에 놓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부모님과 성도들의 기도로 치료를 체험했지



키릴 스빌레노브 박사 (좌)

프로필

- 불가리아 기독교학협회 회장
- 소피아 의학 진단센터 전문의
- 불가리아 국영방송(Europe) 건강 관련 프로그램 의학 자문 및 진행자
- 2007 올해의 최고 가정의학전문의 상 수상
- 2012. 4. WCDN 불가리아 국내 콘퍼런스 강연

요. 오늘날 많은 사람이 기적은 없다고 말합니다. 인체의 신비로움에 감탄하는 많은 의사마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2011년 6월, 호주에서 열린 WCDN(World Christian Doctors Network, 세계기독교의사네트워크) 제8회 국제 기독교학 콘퍼런스에 참석한 류브카 탄체바 박사를 통해 WCDN 사역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모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치유사례를 의학적으로 검증하는 사역이지요. 저는 이 사역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임을 확신했습니다.

이후 2012년 5월, 케냐에서 열린 WCDN 제9회 국제 기독교학 콘퍼런스에 참석해 전율을 느낄 만큼 감동을 받았습니 다. 그곳에 참석한 자체가 큰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이재록 박사님의 영적인 설교를 공급받으며

콘퍼런스 참석을 계기로 WCDN 이사장 이재록 박사님께서 시무하시는 만민중앙교회의 신실한 형제자매님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깨끗함과 진실함을 보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꼈지요. 그들은 이재록 박사님의 사역과 전 세계인을 주님께 인도하는 만민중앙교회의 비전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 뒤 저는 바쁜 일과 속에서도 이재록 박사님의 ‘창세기 강해’, ‘믿음의 분량’ 등 다양한 주제의 설교를 인터넷을 통해 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깊은 영적 세계를 알았고, 단순히 구원 자체로 그치지 않고 우리 삶이 주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지요. 이재록 박사님 메시지는 매우 이해하기 쉬우면서도 영적 깊이가 있었습니다.

특히 인간 경작의 섭리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등을 깨우칠 수 있는 이 박사님의 저서 『십자가의 도』는 영적 성장에 필수적인 말씀이었지요. 뿐만 아니라 유럽과 러시아, 중앙아시아 지역을 커버하는 TBN 러시아 방송을 통해 GCN 방송(www.gcnetv.org) 프로그램을 시청하며 만민중앙교회 예능위원회의 은혜로운 찬양과 공연에 푹 빠지게 되었습니다.

만민중앙교회 방문을 통해 새로운 비전 생김

2012년 10월 초, 저는 만민중앙교회 창립 3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성도들의 씩씩한 중보기도와 체계적인 교회 조직을 보았지요.

이재록 박사님을 직접 뵈니 헌신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매우 겸손하고 사랑이 많은 분이셨습니다. 박사님께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아주 가까이 계시면서 성령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계셨지요. 동시에 성도들에게도 가까이 대하여 매우 친절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능위원회의 아름다운 공연을 관람하며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불가리아 예술학교 강사인 제 아내도 최고의 공연이라고 연신 감탄했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훌륭한 리더가 있고 성도들의 헌신까지 두루 갖춘 만민중앙교회는 과연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교회였습니다. 마치 성경에 기록된 빌라델비아 교회 같았지요.

저는 불가리아가 발칸반도에서 WCDN 사역의 중심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불가리아에 있는 많은 교회에 하나님 권능을 알리고, 성결 복음과 만민의 찬양 문화를 전하고 싶습니다. 귀한 만민의 사역을 알게 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 WCDN 본부 관계자들과 키릴 박사 부부, 동행한 이반 하자르바사노브 목사 부부.



▲ 하나님 권능의 현장 무안단물터 방문 (전라남도 무안군).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침례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진구 부암 1동 275-77 ☎070-8223-4191~4, 010-9818-9833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 2동 109번지 복성 B/D 7층 ☎051)326-1537, 010-5521-2073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고성동 1가 104-9 ☎053)356-4717, 010-4575-1934
- 새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 1동 1281 지하 ☎070-8764-3000, 010-3637-6443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37-1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동명동 909-4 시청 강 건너편 ☎062)513-2455, 010-8888-0727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차평동 118 온천초등학교 정문 앞 ☎062)372-1002, 010-2290-7779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각화동 167-4 ☎062)266-7001, 010-3637-6443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532-3 ☎052)257-5011, 010-2485-153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549-46 ☎052)291-2253, 010-2505-1537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102-1 ☎031)652-9981, 010-3278-7712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석장리 197 ☎031)835-1717, 010-2634-5478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성정동 722-3 ☎041)577-7077, 010-3447-70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신관동 600-22 ☎041)881-7000, 010-3030-7025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흥동 564-15 ☎041)667-4721, 010-2781-2073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권곡동 535-16 ☎041)546-1537, 010-2672-0244
- 서량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동 16-4 ☎042)841-0091, 010-7195-1099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곡 1동 173-11 ☎043)293-7077, 010-9271-7017
- 새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상당구 율랑동 956 ☎043)211-1955, 010-8291-7173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동 700번지 두전사거리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 회원구 회원 2동 626-1 ☎055)247-8891~2, 010-5527-207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내이동 1524-14 ☎055)353-9192, 010-9382-2073
- 진주문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리 301-5 ☎055)852-5815, 010-9196-39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부원동 626-18 ☎055)322-7055, 010-6605-2254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내동 456-12 5층 ☎055)289-9522, 010-9331-4405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용남면 화삼리 965-1 ☎055)648-9107, 010-7224-8891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옥포 2동 520-20 (3층)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북 경주시 동천동 835-6 ☎054)748-5777, 010-3747-5777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 58-14, 4층 ☎054)281-9367, 010-8433-207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대정동 909-10호 3층 ☎054)281-2468, 010-7940-936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 1098-1 ☎054)920-4512, 010-3343-1537
-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동 500-5 ☎061)652-8311, 010-7317-2073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해동 765-2번지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천장리 산 153 ☎061)452-7443, 010-3153-1723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동 1616-14 ☎010-4028-2515, 010-2536-2515
- 진주만민교회 전북 진주시 완산구 효자 2가 929-1 ☎063)323-9991, 010-4202-1537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모현 1동 250-3 ☎063)853-0675, 011-637-0263
- 곡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나운동 798-7 ☎063)468-7027, 010-7777-132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동면 학곡리 2-1(순환대로 637) ☎033)261-4217, 010-2759-701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동 475 ☎033)766-1535, 010-9108-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163-64 ☎033)637-0271, 010-7733-1327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포남2동 1312-4 3층 ☎033)641-3790, 010-6334-7750
- 제주만민교회 제주시 노형동 2775-1 ☎064)745-0675, 010-2468-2251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수유 3동 188-26 ☎02)995-9951, 011-1717-1217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월피동 508-1 ☎031)485-9143, 017-366-5914

- 인천지성전 인천시 남구 주안 5동 23-41 ☎032)863-9857, 011-287-7369
- 김천지성전 인천시 서구 마전동 698-12 ☎032)569-3835, 010-7720-7770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아탑동 367-4 ☎010-6355-1928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452-3 ☎031)905-2419, 019-276-101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735-1 ☎031)552-7397, 010-2290-1856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길 1동 348-5 ☎02)489-3766, 010-3330-3172
- 부평지성전 인천시 부평구 부평 4동 890-3 ☎032)528-3830, 010-7720-7770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109번지 ☎031)202-8480, 010-2213-2073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중리동 465-4 ☎031)635-9103, 010-2718-7458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 3동 165-1 ☎031)840-2906, 010-2251-3149